미크로네시아 얍(Yap)의 해안 문화 경관과 해양 생태 보전

제프리 윌리엄
괌 대학교

2-1

서론

본고와 발표는 얍(Yap) 지역 어살(fish weirs)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어살 및 관련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전통어업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해양생태보전에 대한 현대식 접근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얍은 괌에서 남서쪽으로 840km, 마닐라에서 동남동쪽으로 1,8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4개의 화산섬(통칭 얍 프로퍼 Yap Proper), 7개의 작은 산호섬, 그리고 태평양 북서부 약 800km에 퍼져있는 130개의 환초들이 모인 '바깥 제도(Outer Islands)'가 있고, 이들 모두가 미크로네시아연방국(FSM)의 4개 주 중 하나인 얍 주(州)를 구성한다.

화산섬에 인접한 산호초평원에서 얍 주민들은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연결성과 인식을 포함하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어업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것은 어류육종에 민감한 지역인 연해어업에서 특히 중요하고, 보전과 유지 및 남획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얍 주민들은 어업 관련 몇 가지 문화적 관습(살아있는 유산)을 행하고 몇 가지 유형유산도 만들었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얍의 해안문화경관을 형성한다. 이 시스템은 몇 가지 통발과 어살을 사용하며, 이 중 조간대에 돌을 쌓아 만든 돌살(aech)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얍에는 현재 4곳의 해양보호구역(MPA)이 있다. 얍 주민들은 어업이 현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일부 해양지역에 '어획금지구역'을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의 필요와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과학에 기반하며, 전통어업(문화관습 및 물질문화)과의 관련성이나 혜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전통해양지식을 사용하는 전통 어업방식은 수백 년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이러한 지식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얍의 어업과 해안문화경관

얍주 가길시(市)의 렝마을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통 어살의 주인은 '메르(Mer)'라는 이름의 영혼이 만든 돌살 4곳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남성 형태의 영혼들은 그 당시(외국인들이 섬에 들어오기 수년 전) 얍 주민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고, 돌살을 그런 형태로 만들고 사용한 이유를 묻자, 돌살 주인은 "식량으로 물고기를 언제든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Jeffery, 2010, 부록 1). 영혼은 7일째 되는

날 “물고기가 오고 가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도록” 어살의 뒷부분을 열었고(James Lukan, 2009, 사적 대화) 7일째 되는 날 다시 닫아서 지속가능한 어업 풍습을 만들었다.

처음 7개의 돌살은 영혼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들은 얍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 돌살을 만들고 사용하는지 보여주었다. 4개의 화산섬을 둘러싼 산호초평원에는 800여 개 이상의 돌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lanruw in Jeffery & Pitmag 2020, pp. 110-111).

100km에 달하는 얍 프로퍼의 해안에는 넓은 맹그로브 지역이 있고, 이곳은 좁게는 200m에서 남쪽으로 3,500m에 이르는 산호초평원에 둘러싸여 있다. 산호초평원은 조수가 높을 때 평균 깊이가 2-3m이고 조수가 가장 낮을 때는 최대 22m에 달하는 깊은 구멍과 몇 개의 수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닥이 드러난다(Takeda, 2001, p.2). 맹그로브와 산호초평원은 426가지의 어종과 168종의 단단한 경산호가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구역이다. 얍 주민들에게 생선은 몇 안 되는 단백질 섭취원의 하나였고 지금은 단백질 섭취원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선은 주요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산호초평원의 바깥 연안에서 어망, 끌망, 작살을 사용하고, 산호초평원 안쪽 연안에서 다양한 어살, 통발, 울타리, 어망을 사용하는 등 여러 어업방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어업방식은 마술과 의식을 사용하고, 어획량을 나누고 촌장 등 다양한 사람에게 바치는 공물을 비롯해 여러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시행되었다. 얍 주민들은 날치를 잡는 등 연해어업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산호초평원 너머] 바다를 탐험하는 데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다(Suriura, 1939:2). 각 마을은 저마다 연근해 어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을 인근의(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호초평원 바깥의) 모든 ‘해저 토지(sea-plots)’는 그 마을의 다양한 가족이 소유했고, 접근이 제한될 수 있었다. 다른 얍 주민들에게는 이곳의 바다, 돌살(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업방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졌다.

돌살의 스타일과 형태, 설치 방법은 해저의 특징(예를 들어, 얕은 물과 해초지 또는 깊은 물), 조류와 파도의 세기와 방향, 그리고 얍의 다양한 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어종 등 돌살을 설치하는 곳의 특징에 맞게 사용되었다. 해안선에서 가깝고 해초지가 많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돌살이 화살

표 모양으로, 30-90m 길이의 긴 화살대 모양과 가로 길이가 60m에 달하는 화살촉 모양의 공간이 해안에서 바깥쪽을 향해 설치된다. 화살촉 모양의 양쪽 끝 또는 한쪽 끝에는 작은 칸들이 만들어져 있다.(그림 1) 화살대의 끝에 있는 화살촉은 대칭적이지 않고 한쪽이 더 길다. 물고기는 이곳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화살대를 따라서도 화살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이 빠지면 그곳에 갇히게 된다(Hunter-Anderson, 1981, p. 85). 2008-2009년 조사 결과 432개의 돌살이 발견되었고 46개가 지도에 표시되었으며 12개의 다른 방식이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작은 방이 1개, 2개, 4개 혹은 6개까지도 있었다. 해안 근처의 또 다른 종류는 화살 모양으로 담을 쌓아 우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물고기는 조수가 높을 때는 벽의 맨 윗부분을 넘어서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그대로 이곳에 갇히는 방식이었다. 해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깊은 블루홀의 주변으로 넓은 V자 형태의 돌살이 설치되었고,(그림 2) 산호초평원 가장자리 근처에는 막힌 공간이 없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치되었다.

같은 스타일의 어살이라도 돌담을 만드는 방법 등 독특한 차이가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돌살이 설치된 지리적 위치, 바다의 상태와 포획어종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물고기를 막힌 공간(chamber)으로 몰고 오거나 돌살 뒤에 숨어있다가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퍼올리는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사진1. 가길(Gagil) 시에 위치한 수천개의 작은 현무암 암석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돌살©빌 제프리, 2019

돌살의 다양한 스타일과 설치 방법은 얍 주민들이 산호초평원의 다양한 생태구역에서 물고기의 이동과 습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영혼들이 어떻게 돌살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고 사용하는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다는 믿음은 얍 주민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자연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했는지 보여준다. 얍 문화목록집단(n.d., p.27)이 만든 얍 주민에 대한 민족지학지에서 이들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 얍 사회에서 어업은 전통적 권위와 권력이 부과한 엄격한 규칙으로 잘 규제되었다. 해양구역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큼이나 잘 정의되어 있었다. 어업권과 특권은 얍 주변의 바다가 남획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에 의해 규제되었다.

오늘날에는 800여 개의 돌살 중 몇 개만 사용되지만, 전통적 지도자들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지속불가능한 어업 행위들의 사용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돌살을 복구하고 살아있는 유산을 부흥시키도록 단합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돌살과 관련된 어업 행위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시행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려는 열망과, 그 결과로 얍 사회 전반에서 '공동체 의식'이 다시 활력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 합쳐진 것이다(Jeffery, 2013).

사진2. 루룽(Rumung) 시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블루홀 인근에 설치된 돌살 ©빌 제프리, 2019

해양보호 부역과 전통 생태지식

이러한 어업방식의 부활 외에도, 어업의 보존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4곳이 지정되었다. 해양보호구역은 마을과 공동체에 의해 개발되었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소유권은 물론 어업이 지역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마을에 의해, 마을을 위해 개발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은 즉시 전통적인 해양관리법을 자신들의 관리법에 도입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님펄 해양보호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밖의 지역과 비교했는데 전통어업방식과 통발/어살에 관한 주제는 아니었다(Olsudong, et al., 2012). 타이완의 펑후(Pengh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어살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생물다양성과 비교했을 때 어살 내부의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lobal Island Network, 2020; Kemp, 2006, p.34). 전통어업방식과 지식은 얍 주민들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어업에서 사용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라는 관점을 고려할 때 분명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 연구는 얍 지역의 해양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전통기술과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2013, pp. 3,7,10,14)'

해양보호구역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전통 생태지식을 활용할 경우 많은 긍정적인 혜택이 있다. 이것은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 이니셔티브에서 필수적인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구적 관점에서 과학을 강조했지만 '2019 유엔 해양과학 10년 태평양 공동체 워크샵'에서 강조된 바 있듯이, 토착민들은 '토착 과학'을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020). 과학이 그렇듯이, 이들도 관찰을 통해 자연계의 구조와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하며, 얍 어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년에 걸쳐 "전통 생태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을 개발했다(James Lukan, 2008, 사적 대화).